

“원불교학 성과의 회고와 전망 - 교단 제3대를 중심으로” 논평문

원광대학교 교학대학 원불교학과
허석

반갑습니다. 제17차 혁신세미나에 토론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교단 4대 1회 12년 동안 교단 구성원들의 가장 많은 관심이 필요한 내용을 주제로 선정”했다는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원불교학을 그중 하나로 선정해서 이런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점 거듭 감사드립니다. 교단 4대가 지향하는 ‘세계화’를 통해 결복기 교운을 힘차게 열어가기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사상을 마련하는 사상의 보편화·체계화 작업이 필요하며, 이 일은 우리 교단 전 구성원이 함께 관심과 힘을 합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문은 먼저 권덕규, 국성천 교무님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발표를 주요 내용 중심으로 요약해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발표의 주요 내용은, III장 ‘연구 대상 및 범위와 방법’에서 원불교학의 범주를 총 5분야(교의·실천·실증·응용·교사교학)로 하고 각각의 정의를 내렸고, 앞선 5분야를 원불교학의 ‘대분류’로 하고 각각의 중분류와 소분류를 두었습니다. IV장 ‘연구 대상 및 범위와 방법’에서는 1970년대부터 학술지에 게재된 원불교학 논문 1445편의 연구동향을 시기·주제·연구기관별로 분석해 주었고, 원불교학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안에 구분해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V장 ‘원불교학 연구 성과의 평가 및 제언’에서 “①원불교학 연구의 지속가능성 ②실천교학 연구의 활성화 ③실증교학 연구의 집중화 ④원불교학과 교화현장과의 연계성 강화 ⑤원불교학 연구 기반의 교단 정책과 교단적 영향 창출”의 다섯 가지 문제를 제안해 주었습니다.

지적한 연구제원의 확보, 실천교학과 실증적 연구의 활성화, 교화현장에 필요한 연구의 강화, 연구에 기반한 정책 수립은 저도 평소에 고민하던 바여서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1445편에 달하는 연구논문을 발굴·정리해서 여러 관점으로 분석해서 원불교학의 성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불교학의 분류체계를 5개 대분류와 41개 중분류, 121개 소분류로 제안했는데, 이는 앞으로 학문분류체계에 관한 논의의 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문은 이에 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발표문을 읽은 저의 의견이나 원불교학 발전을 위해 더 나누고 싶은 내용들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1. ‘원불교학 범주와 개념’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불교학 분류표(안)을 제시하면서 기존 연구자들의 ‘원불교학 분류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이를 보완해서 작성했다고 하셨는데, 그에 관한 논의나 설명이 생략되어 보입니다. 어떤 교리적 근거로 대분류-중분류-소분류를 정하셨는지, 그리고 학문의 보편성을 생각할 때 이웃종교의 분류체계와는 어떻게 비교되는지 등이 보완되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지적하자면, 연구자께서 강조하시는 ‘실증교학’이 교의교학이나 실천교학과 대등한 대분류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인지, 교의교학의 중분류와 소분류가 교리체계 안에서 해당한 것인지(가령『정전』목차를 기준으로 구분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제3 수행편에 해당하는 내용은 ‘교리론’으로 하고, 제2 교의편에 해당하는 교리를 각각의 중분류로 하는 것이 맞는지, 제1 총서편에 해당하는 내용은?) 경전학의 정전이 ‘경전의 교리 구조 등’을 다루는 것이라면 앞선 중분류의 내용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불교·유교·도교 등을 ‘철학사상’이라고 칭하는 것이 합

당한지 등, 제안하신 분류체계에 관해 논의와 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본 발표가 교단 제3대 원불교학의 성과를 회고하고 4대를 전망하는 것인데,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정해 성과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현수 교수님의 「원불교학 연구의 회고와 전망」(2016)에서는 ‘사전’, ‘학술지’, ‘교재’, ‘자료집성’, ‘특별사업’을 꼽았고, 허석의 「원불교학의 성과와 전망, 그리고 세계화를 위한 과제」(2024)에서는 정부지원사업, 정역(正譯)사업, 북미권에서 영문으로 발표된 원불교학 연구성과를 추가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국내 학술논문만으로 평가될 수 없는 다양한 원불교학의 연구성과를 종합 검토하는 것은, 단지 평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발표자가 지적하신 원불교학의 개념정립이나 정체성과도 연결됩니다. 특히 교단 3대 3회 설계, 4대 1회 설계 때 공통적으로 ‘원불교학의 세계화’라는 과제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불교학의 당면 과제와 향후 전망 및 계획을 세우는데도 해외연구나 다양한 연구성과가 종합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는 그중 국내 연구논문에 집중한 것이니, 그 외의 성과를 보완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서론에서 연구범위의 한계를 언급하고 제목 부제를 수정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3. 다음은 제언에 관한 내용입니다. V 장의 다섯 가지 제언 하나하나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연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후속세대 발굴이 중요한데, 이것은 신진 연구자들의 개인적 노력과 함께 교단적인 정책적 · 물적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일이며 10년을 내다보고 인재를 길러야 할 사안입니다. 또한 실천교학의 활성화, 실증교학 연구의 집중을 위해서 관련 기관의 노력을 주문하셨는데, 이 목표가 해당 기관에서 실행되어 성과로 나오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누가(또는 어느 기관이) 원불교학의 현안을 총괄하면서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에서 책임감 있게 현안들을 풀어나갈 것이며, 그에 따른 조직과 예산, 정책은 어디서 어떻게 뒷받침할지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는다면 12년 후에도 또다시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제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교단 4대 1회 설계안 중 ‘원불교학의 세계화’라는 주제로 총 10가지 핵심과제를 선정했는데, 이 열 가지 과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가 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고사 직전에 놓인 원불교학의 오늘을 생각할 때 이제는 계획 세우고 제언할 때만은 아니라는 절박함을 느낍니다. 발표자께서 생각할 때, 교정정책과 연구 · 교육기관 전체가 원불교학 발전이라는 하나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 어떤 공통의 노력을 해 나가야 할지, 그리고 가장 시급한 과제와 이를 풀기 위한 현실적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청해봅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금 교단 4대 1회 설계안에 담긴 ‘원불교학의 세계화’ 내용을 상기하자는 의미에서 그 내용을 아래 표로 정리해 드리는 것으로 토론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불교 4대 1회 설계안 중 ‘원불교학의 세계화’ 관련 내용>

과제정의	원불교의 사상 · 역사 · 문화제도 · 교화에 관해 연구함으로써 원불교가 세계 보편종교로 발돋움하는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인류사회의 건전한
------	---

	정신문화와 세계평화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종합적 방안을 모색한다.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불교학 연구를 양적·질적으로 향상시켜 학문분류체계를 상향한다. 2. 원불교학의 국제활동을 강화하여 세계 보편종교로의 토대를 마련한다. 3. 원불교학 연구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을 조성한다.
핵심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불교학 연구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문분류체계에서 원불교학의 상향조정 2) 원불교학회 정착 및 각종 학회활동의 활성화 3) 원불교학 연구기관 및 연구인력의 상호협력 강화 4) 연구성과를 대중화할 수 있는 공유 및 홍보 시스템 마련 2. 국제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불교교서 정역의 보완 2) 국외 원불교학 연구기관 설립 3) 국제학술지에 원불교학 논문 투고 및 국제학술지 발행 3. 연구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불교 원자료의 DB화 2) 학문 후속세대에 대한 정책적 발굴과 양성 3) 원불교학 연구기금 마련